2016년 6월 18일 시행

지방직 9급 <국어> 문제와 해설

1.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열쇠, 새빨갳다 ② 덮밥, 질푸르다
- ③ 감발, 돌아가다 ④ 젊은이, 가로막다

정답) ②

해설) ① 통사, 파생어 ② 비통, 비통 ③ 비통, 통사 ④ 통사, 통사

- ① 열쇠: 열(‘열다’의 어간) + ㄹ(관형사형 어미) + 쇠(명사) = 통사적 합성어
새빨갳다: 새(접두사) + 빨갳다 = 파생어
- ② 덮밥: 덮(은) + 밥 = 비통사적 합성어
질푸르다: 질(다) + 푸르다 = 비통사적 합성어
- ③ 감발: 감(은) + 발 = 비통사적 합성어
돌아가다: 돌다 + 가다 = 통사적 합성어
- ④ 젊은이: 젊은 + 이(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 통사적 합성어
가로막다: 가로(부사) + 막다(용언) = 통사적 합성어

2.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희생을 치뤄야 대가를 얻을 수 있다.
- ②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뒤쳐진 이유가 있겠지.
- ③ 방과 후 삼촌 댁에 들른 후 저녁에 갈 거여요.
- ④ 가스 밸브를 안 잠궜 화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정답) ③

해설)

- ① 치뤄야: ‘치르다’가 기본형이므로 ‘치러야’로 써야한다.
- ② ‘뒤쳐지다’는 물건이 뒤집혀서 젓혀짐을 뜻하고, ‘뒤쳐지다’는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됨을 뜻한다. 따라서 ‘뒤쳐지다’로 써야 한다.
- ④ 잠궜: ‘잠그다’가 기본형이므로 ‘잠가’로 써야한다.

3.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지금으로부터 십여 년 전에 작은 소요가 있었다.
- ②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대로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 ③ 수정 요청시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뿐 아니라 추진력 마저 없는 사람이다.

정답) ①

해설)

- ② ‘대로, 만큼, 뿐’은 용언 다음에 띄어 쓰면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정한 대로’로 띄어 써야한다.(교재 41p)
- ③ ‘시’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요청 시’로 띄어 써야한다.
- ④ ‘마저’는 조사이기 때문에 ‘추진력마저’로 붙여 써야 한다.(한글맞춤법 제41항 참고. 교재 123p)

4.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돌파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법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가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따라서 ㉣자신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주변의 사물을 비판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 ① ㉠: 단어의 쓰임이 어색하므로 ‘탈피하는’으로 고친다.
- ② ㉡: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잇지 못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 ③ ㉢: 주술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길러진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④ ㉣: 주장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고친다.

정답) ②

해설)

② ‘그러나’ 뒤에 부정어 ‘아니다’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나’의 앞 문장에서는 자신만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뒤 문장에서는 창의적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독특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잇고 있다. 따라서 고칠 필요가 없다.

5. 단어의 밑줄 친 부분의 음이 다른 것은?

- ①否認 ②否定 ③否決 ④否運

정답) ④

해설) ① 부인 ② 부정 ③ 부결 ④ 비운

6.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어서 생각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말보다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그 생각의 위대함이나 오묘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생각이 형님이요, 말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은 동생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 ① ‘사과’는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 ② 동일한 사물을 두고 영국에서는 [tri:], 한국에서는 [namu]라 표현해.
- ③ 이 소설은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받은 감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
- ④ 시간의 흐름을 초, 분,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해 온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야.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부분은 생각이 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로 뒤 문장에서 ‘생각을 말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③이 적절한 예시이다.

7. ‘생각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의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다. 패널 토의, 심포지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패널 토의는 3~6인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일반 청중 앞에서 토의 문제에 대한 정보나 지식, 의견이나 견해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유형이다. 토의가 끝난 뒤에는 청중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토의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은 관련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심포지엄은 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점,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패널 토의와 그 형식이 비슷하다. 다만 전문가가 토의 문제의 하위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설이나 강연의 형식으로 10분 정도 발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 ① ㉠과 ㉡은 모두 ‘생각 살리기’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 ② ㉠과 ㉡은 모두 ‘생각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다.
- ③ ㉡은 토의자가 생애적 특성, 생애 살리기의 경제적 효과 등의 하위 주제를 발표한다.
- ④ ㉠은 ‘생각 살리기’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나누어 이야기한 후 절차에 따라 청중이 참여한다.

정답) ④

해설) 토의는 대립성보다 협동성을 더 중시하고 토론은 협동성보다 대립성을 더 중시한다. 따라서 찬반 입장에 따라 이야기 하는 것은 토론에 해

당한다.

8.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피아노를 향하여 앉아서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 손으로 키를 두드려 보다가는 다시 머리를 기울이고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 여섯 번을 다시 하여 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피아노에서 울려 나오는 음향은 규칙 없고 되지 않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야성? 힘? 귀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감정의 재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안 됩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이 연하여 고개를 기울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시간도 못 되어서 벌써 잊어버린담?”

나는 그를 밀어 놓고 내가 대신하여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까 베낀 그 음보를 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낀 곳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화염! 화염! 빈곤, 주림, 야성적 힘, 기괴한 감금당한 감정! 음보를 보면서 타던 나는 스스로 흥분이 되었습니다.

- 김동인, 「광염 소나타」 중에서 -

- ① 화려한 기교가 없는 연주
- ② 악보와 일치하지 않는 연주
- ③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연주
- ④ 기괴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

정답) ④

해설) 글의 앞부분에서는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지만 한낱 소음에 지나지 못하다고 하며,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를 대신해 내가 연주함으로써 야성, 힘, 감정에 스스로 흥분되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연주를 의미한다.

9.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저어기, 개천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이 언제 어딜 가는지 알아내시겠어요?”

“어디, 누구?”

“저거, 땅꾼 아니냐?”

“땅꾼요?”

“거지 대장 말야.”

“저건 둘째 대장예요. 근데 지금 어딜 가는지 아시겠어요?”

“인석,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그러면 소년은 가장 자랑스러이,

“인제 보세요. 저어 다리께 가게루 갈 테니.”

“어디 …… 참, 판은 가게로 들어가는구나. 저놈이 담뱃 사러 갔을까?”

“아무것도 안 사구 그냥 나올 테니 보세요. 자아, 다시 돌쳐서서 이 쪽으로 오죠?”

“그래 인젠 저놈이 어딜 가누.”

“인제, 개천가 선술집으루 들어갈 테니 보세요.”

“어디 …… 참, 판은 술집으루 들어가는구나. 그래두 저놈이 가게서 뭐든지 샀겠지, 그냥 거긴 갔다 올 까닭이 있나?”

“왜 들어가는지 아르크 드릴까요? 저 사람이, 곧잘, 다리밋으루 들어가서, 게서, 거지들한테 돈을 십 전이구 이십전이구, 얻어 갖거든요. 그래 그걸루 술두 사 먹구, 밥두 사먹구 허는데, 그게 거지들이 동냥해 들인 거니, 이십 전이구, 삼십 전이구 간에, 모두 동전한 썩짜릴 거 아녜요? 근데 저 사람이 동전 가지군 절대 술집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은제든지 꼭 가게루 가서 그걸 모두 십 전짜리루 바꿔 달래서 …….”

- 박태원, 「천변풍경」 중에서 -

- ①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라서 대화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 ②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다.
- ④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아내고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두 사람의 관심사는 같으며, ② 소년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둘째 대장으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다.

③ 둘째 대장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지, 현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위 글에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1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기로 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실험을 계획했다. 그 심리학 교수는 인류학 교수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그 교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혹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나타내며 들을 것.

한 학기 동안 계속된 이 실험의 결과는 흥미로웠다. 우선 재미없게 강의하던 그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떴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씩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실험 차원에서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정말로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학생들도 나오게 되었다.

- ① 학생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② 교수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 ③ 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
- ④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

정답) ④

해설) 심리학 교수가 인류학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전달한 주의 사항 2가지를 보면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이 제목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11. 다음에 제시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가난한 집 신주 굶듯
- ②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
- ③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 ④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정답) ③

해설)

① 가난한 집에서는 산 사람도 배를 굶는 형편이므로 신주까지도 제사 음식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으로, 줄곧 굶기만 한다는 말.

② 가난한 집에는 먹고 살아 나갈 걱정이 큰데 자식까지 많다는 뜻으로, 이래저래 부담되는 것이 많음을 이르는 말.

③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살아가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제삿날이 자꾸 돌아와서 그것을 치르느라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으로, 힘든 일이 자주 닥쳐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숲에서 잔생하던 희귀 식물들의 개체수가 줄었다.
- ②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것저것 따질 개재가 아니다.
- ③ 이번 아이디어 상품의 출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④ 현대 사회에서는 유훈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보가 넘쳐 난다.

정답) ②
해설)

‘개재’는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②은 ‘개재’ 대신 ‘계제’[階梯.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형편이나 기회]로 바꾸는 것이 적당하다.

13. 명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타올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타올에 관한 한 독보적인 기록도 깨졌다.
명 조 동 명 명 조 명 조 동
∴ 타올, 한, 독보적, 기록 = 4개
- ② 상자에 이런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명 조 관 명조 형 동 형
∴ 상자, 것 = 2개
- ③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못되게 군다.
명 명 조 관 명 조 부 형 동
∴ 친구, 외, 사람 = 3개
- ④ 저 모퉁이에서 얼굴이 하얀 이가 걸어오고 있다.
관 명 조 명조 형 명조 동 형
∴ 모퉁이, 얼굴, 이 = 3개

14.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학술지의 규정(規正)에 따라 표절 논문을 반려하였다.
- ② 문법 구조(救助)를 잘 이해하면 독해력이 향상된다.
- ③ 각급 기관에서 협조할 사안이 충분(充分)히 있다.
- ④ 사회적 현상(懸賞)을 파악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규정(規正): 바로잡아서 고침.
규정(規定):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
- ② 구조(救助):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구조(構造):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 ④ 현상(懸賞): 무엇을 모집하거나 구하거나 사람을 찾는 일 따위에 현금이나 물품 따위를 내걸. 또는 그 현금이나 물품.
현상(現象):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1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이 너무 번드르르해 미덥지 않은 자들은 대부분 口蜜腹劍형의 사람이다.
- ② 그는 싸움다운 전쟁도 못하고 一敗塗地가 되어 고향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 ③ 그에게 마땅히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首鼠兩端하다가 시기를 놓쳤소?
- ④ 요새 신입생들이 선배들에게 예의를 차릴 줄 모르는 걸 보면 참 後生可畏하다는 생각이다.

정답) ④
해설)

- ① 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름’을 이르는 말.
- ② 일패도지: 싸움에 한 번 패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어진다는 뜻으로, ‘크게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③ 수서양단: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쥐라는 뜻으로, ‘이리 저리 눈치만 봄’을 이르는 말

④ 후생가외: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으로, ‘후배가 선배보다 또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남’을 이르는 말

16. 토론자들의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p>사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은행에도 일부 보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영수: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에서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은행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p> <p>민수: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 관리에 다소 부주의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부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p>
--

- ① 영수와 달리, 민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②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은행과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영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역할을, 민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답) ①

해설) 영수는 개인들의 잘못을 은행이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수는 개인의 부주의보다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①이 가장 적절히 분석한 것이므로 정답이다.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crisis’의 어원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크리네인(Krinein)’이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를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동양인들 또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p>
--

- ① 위기가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미리 대처해야 한다.
- ②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 ③ 위기가 지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 ④ 욕심에서 비롯된 위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서양에서는 위기에 잘 대응하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동양에서는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8. 다음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금와는 그때 한 여자를 대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여 사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p> <p>㉡금와가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p>
--

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중략)… 금와에게는 아들이 일곱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만아들 대소가 말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주몽에게는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락이라면 어디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벼를 삼아 떠나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빌었다. “나는 천제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舟橋)를 내려 주소서.”하고 활로 물을 찼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강을 건너게 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어 버렸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 작자 미상, 「주몽신화」 중에서 -

- ① ㉠: ‘유화’가 귀양에 처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 ② ㉡: ‘유화’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 ③ ㉢: ‘주몽’이 준마를 얻기 위해 ‘대소’와 모의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주몽’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 ‘신’과 교통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주몽이 대소와 모의한 내용은 없고, 주몽에게는 말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19.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현대인의 삶의 태도는?

근대 이후 인간들은 불안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권위주의적 양태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자 하는 것으로, 사라진 제1차적 속박 대신에 새로운 제2차적 속박을 추구하는 양상을 띤다. 이것은 때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견 대립적으로 보이는 이 두 형태는 불안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권위주의적 양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 ①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나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태도.
- ②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모나 어른의 의견보다는 아이들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
- ③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지기보다는 언론 매체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 ④ 직업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보다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삶의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태도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부분의 뒤 문장에서 현대인들은 개인적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고 자기 이외의 어떤 존재에 종속되고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③의 태도가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하다.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 상징적 행동을 배제하게 되면 남는 것은 실용성과 관련된 설명뿐이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 시가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적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가령,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 보자.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메리카 사회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제 공공건물 앞의 보도에 한데 모여서 흡연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 사이에 즉각적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말이다. 그런 그들에게 더러 경멸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공공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는 한, 남에게 해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에, 또는 파티 도중에 전리품을 자랑하듯이 당당하게 시가를 꺼내어 입에 문다. 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 연기를 삼키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몸에 덜 해롭다는, 일반적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뱉어 내는 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려는 거녕, 오히려 실내 공기를 더욱 심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 당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궤련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궤련은 죽음의 상징이 되었고, 그 캠페인은 상류층 사람들 사이에 즉각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도 궤련을 피우지 않지만, 싸구려 술집에는 여전히 궤련 연기가 자욱하다.

- ①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특정 현상에 담긴 의미를 밝히려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셋째 단락에서 자문자답 형식을 사용.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
 ② 난해한 용어 정의는 보이지 않는다.
 ③ 첫째 단락에서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나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메리카 사회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궤련을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
 ④ 궤련을 피우는 사람과 시가를 피우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글을 전개하고 있다.